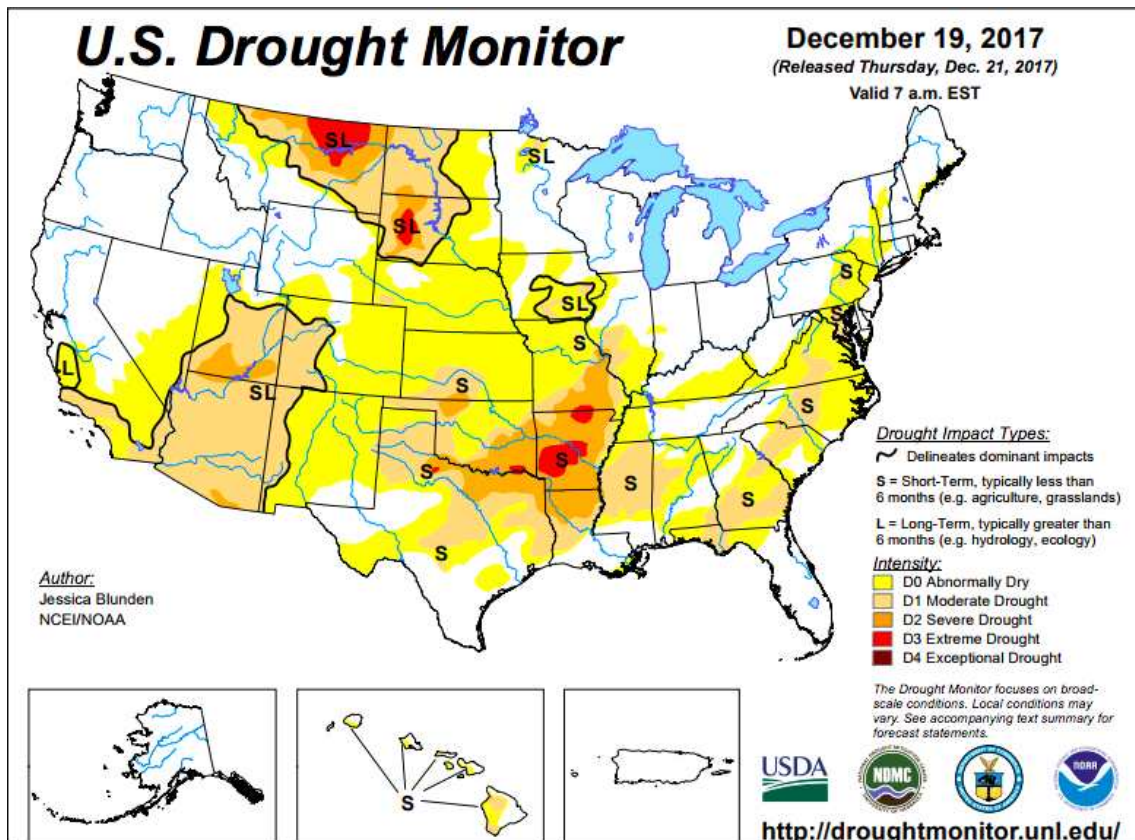


12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52)

□ 미국 기후 현황(12/17~12/23)

중남부 일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텍사스 북동부에서부터 테네시,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 등에서는 2~6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밖에도 남부, 동부 등에서는 가벼운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한편, 남서부의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Thomas 산불 진화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지역의 면적은 280,000에이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네브라스카 북부에서부터 북쪽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밀 재배지 일대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 걸프만 북부 지역에서부터 오하이오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인 반면, 캘리포니아 San Joaquin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12/18~12/24)

북부 지역 일대에서는 12월 24일 전후로 눈이 내렸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고, 텍사스 북동부에서부터 테네시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남동부와 오하이오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 특히 걸프만 연안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2°F 이상 기온이 높았다. 뉴 잉글랜드 북부와 태평양 연안 지역, 로키산맥 동부 지역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12/17~12/23)

■ 유럽: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는 2~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과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5~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지난 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중부 일대에서는 여전히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주 초반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50°C 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2~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도 30°C 중반까지 낮아졌다. 주요 밀 재배지역인 서호주 및 남호주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비로 인해 겨울작물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C 정도 낮았고, 남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Cordoba 동부에서부터 Parana 강 하류의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서부 등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69%를 기록했고, 대두의 파종률은 70%를 기록했으며, 밀의 수확률은 69%를 기록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에서부터 Minas Gerai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가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에서 중반 내외에 머물렀고, 주 후반에는 20°C 중반까지 오르내리는 등 더위가 한풀 꺾였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8일 기준 대두 재배지의 60%가 filling stage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의 주요 대두,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